

2012년 10월 건설기계 수출 현황

5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한 국내 건설기계 수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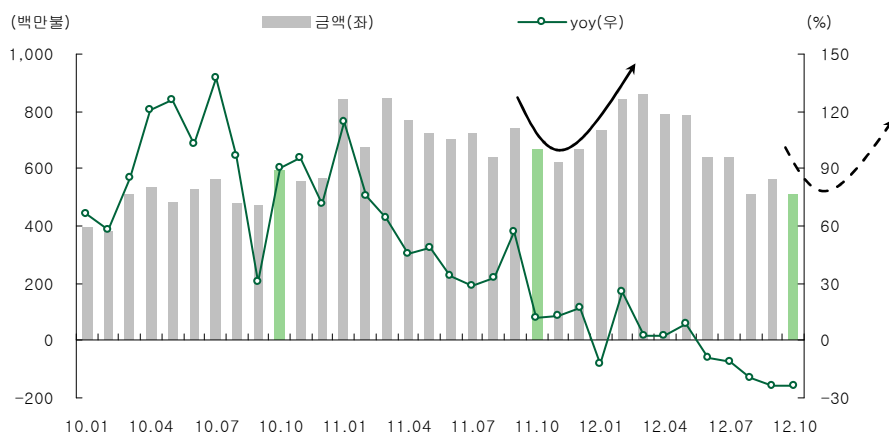
2012년 10월 국내 건설기계 수출현황(잠정치)이 발표되었다. 10월 CKD 및 지게차를 포함한 국내 건설기계 수출금액은 전년동월대비 23.6% 감소한 5.1억불을 기록하였다. 품목별로는 지게차를 제외한 건설기계(부품 포함)가 전년동월대비 26.2% 감소한 4.5억불(-10.3%, MoM)을 기록하였으며 지게차는 8.7% 증가한 55백만불(-1.4%, MoM)을 기록하였다.

전체적인 수출금액 성장률은 -23.6%로 9월(-24.1%) 이후 가장 큰 감소율을 기록했으며, 5개월 연속 역성장을 기록하였다. 10월 수출 부진의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던 미국 수출금액이 비교적 큰 폭으로(-20.6%, yoy) 감소했기 때문이다. 미국 내 중장비 렌탈업체들의 교체수요가 마무리 국면에 진입한 여파로 풀이된다.

10월 국가별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중국 부진 지속 및 미국 하락 반전으로 요약된다. 중국 수출금액은 여전히 전년동월대비 50%를 상회하는 감소율을 기록(-61.7%)하는 가운데 미국 수출금액이 전년동월대비 20.6% 감소하며 전체적인 외형을 끌어내렸다. 반면, 터키(+125.5%, yoy), 브라질(+48.8%, yoy), 사우디(+21.1%, yoy) 등 신흥국가 중심으로는 수요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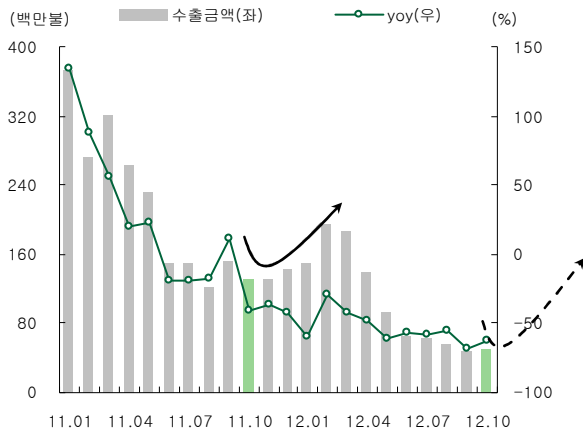
4분기를 시작하는 10월 수출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이지만, 과거 추세를 보면 연말을 기점으로 수출금액이 상승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. 이는 국내 최대 수출국가인 중국의 굴삭기 판매량이 4분기부터 반등하여 1~2분기 계절적 성수기를 맞이하기 때문이다. 따라서 국내 건설기계 수출은 4분기를 저점으로 점차 회복국면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.

그림 1. 월별 국내 건설기계 총 수출현황 (부품 및 지게차포함) - 3분기 바닥, 4분기 회복 전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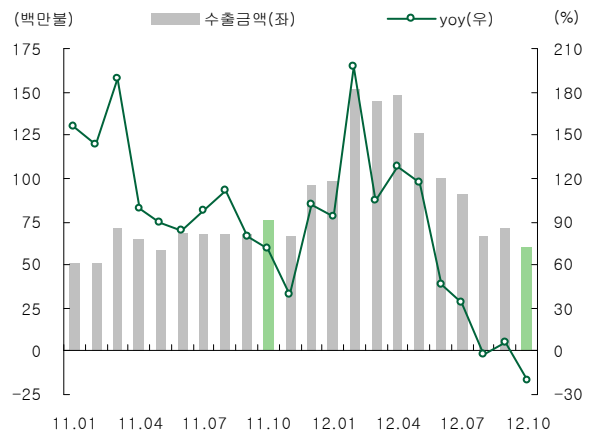
주: 10월 데이터는 잠정치
자료: 관세청, IBK투자증권

그림 2. 중국 수출금액 추이 - 4분기 이후 반등 기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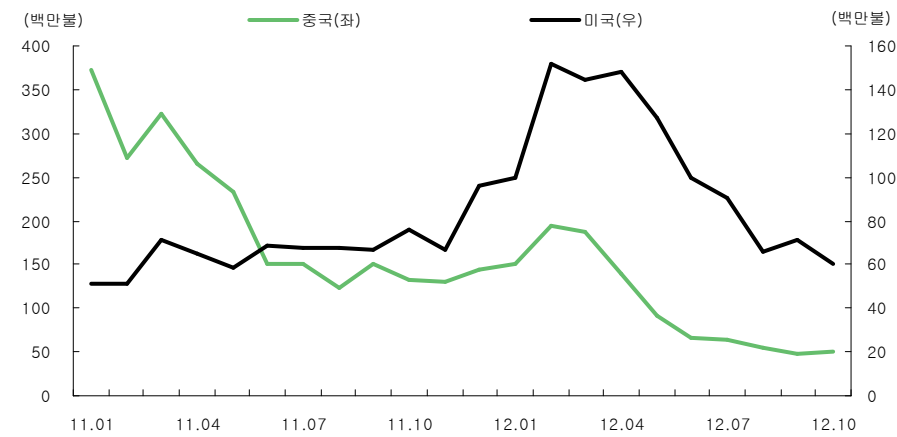
주: 10월 데이터는 잠정치
자료: 관세청, IBK투자증권

그림 3. 미국 수출금액 추이 - 하락 전환



주: 10월 데이터는 잠정치
자료: 관세청, IBK투자증권

그림 4. 중국 vs 미국 월별 건설기계 수출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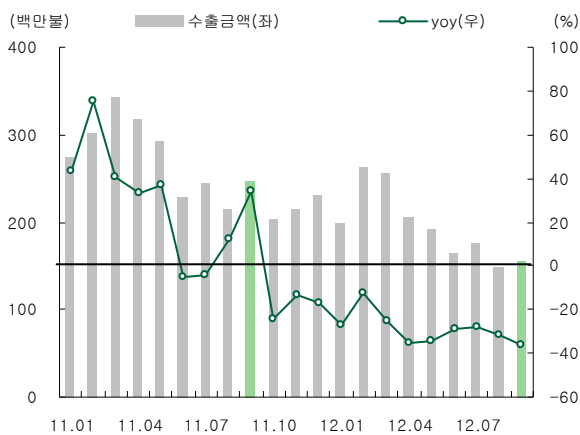


주: 10월 데이터는 잠정치
자료: 관세청, IBK투자증권

건설기계부품 수출현황: 중국 수출금액 전월대비 상승에 주목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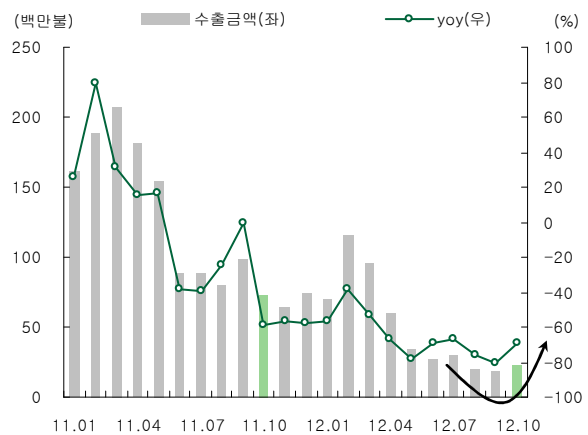
2012년 10월 국내 건설기계부품 총 수출금액은 전년동월대비 27.5% 감소한 1.5억불 수준에 머물렀다.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감소추세가 13개월 연속 이어지며 금융위기 이후 최장기간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. 2011년 기준, 국내 건설기계부품 수출의 절반 가까이(약 47%)를 차지하는 중국시장 침체로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. 그러나 중국 수출금액이 전월대비 상승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.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, 중국 굴삭기 시장 침체로 완제품 세트업체들이 올해 내내 가동률을 낮춘 채 재고감축에 주력한 결과 상당부분 재고가 소진되어 연초(2013년 1분기) 계절적 성수기를 앞둔 현 시점에서는 부품을 포함한 재고 Restocking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.

그림 5. 월별 국내 건설기계부품 수출현황



주: 10월 데이터는 잠정치
자료: 관세청, IBK투자증권

그림 6. 월별 국내 건설기계부품 중국 수출현황 → 전월대비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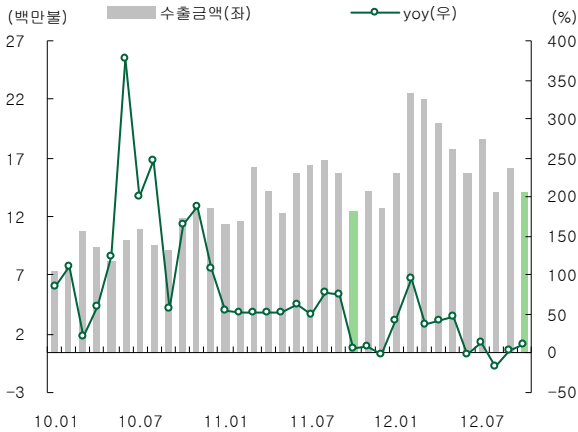


주: 10월 데이터는 잠정치
자료: 관세청, IBK투자증권

개별 부품 품목별로는 [크레인, CPT ⇒ 호조 // 유압실린더, 천공기 ⇒ 반등 // 브레이커 ⇒ 부진]으로 요약된다. 크레인, 콘크리트 펌프트럭(CPT)은 연초 이후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고, 유압실린더와 천공기(Rock Drill)는 전월의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. 다만, 굴삭기 판매량에 3~6개월 가량 후행하는 유압브레이커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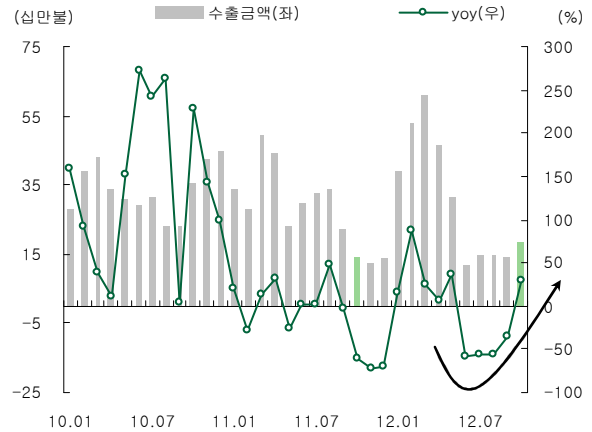
유압실린더 10월 수출은 일본수출 성장세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11.7% 증가한 1,358만불을 기록하였다. 10월 수출현황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중국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29.3% 증가세로 반전했다는 점이다. 앞서 밝힌 대로 부품재고가 소진된 상태에서 계절적 성수기가 다가옴에 따라 부품 Restocking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. 유압실린더 중국 수출금액은 전월대비로도 26.4% 증가하였다.

그림 7. 월별 국내 유압실린더 수출현황 - 반등 지속



주: 10월 데이터는 잠정치
자료: 관세청, IBK투자증권

그림 8. 월별 국내 유압실린더 중국 수출현황 - 반등 성공!!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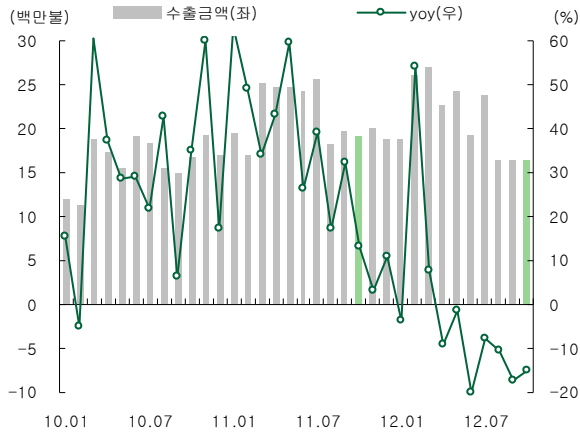
주: 10월 데이터는 잠정치
자료: 관세청, IBK투자증권

유압브레이커 수출은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. 10월 수출금액은 전년동월대비 14.8% 감소한 1,630만불을 기록했는데, 전년대비 감소세는 올해 3월 이후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. 통상 굴삭기 판매에 3~6개월 후행하는 제품 특성상 내년 상반기까지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.

크레인과 콘크리트 펌프트럭(CPT)수출 호조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. 특히 크레인의 수출 성장세가 매우 가파르다. 러시아 수출 급증세에 힘입어 2012년 1~10월 누적 수출금액은 전년대비 92.5% 급증한 5,631만불을 기록하였는데, 10월에는 전년동월대비 48.0% 증가하였다. 러시아는 2014년 동계올림픽(소치), 2018년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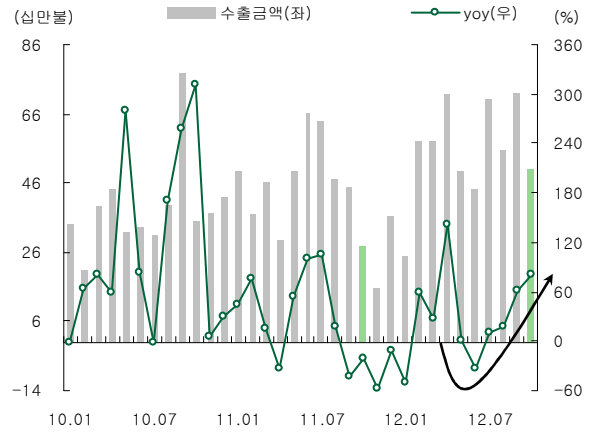
CPT 역시 중동(사우디) 및 러시아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. 수출금액 성장률이 지난 6월을 저점으로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.

그림 9. 월별 유압브레이커 수출현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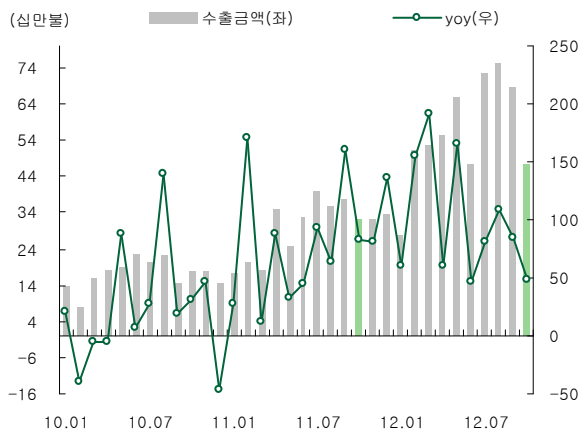
주: 10월 데이터는 잠정치
자료: 관세청, IBK투자증권

그림 10. 월별 CPT 수출현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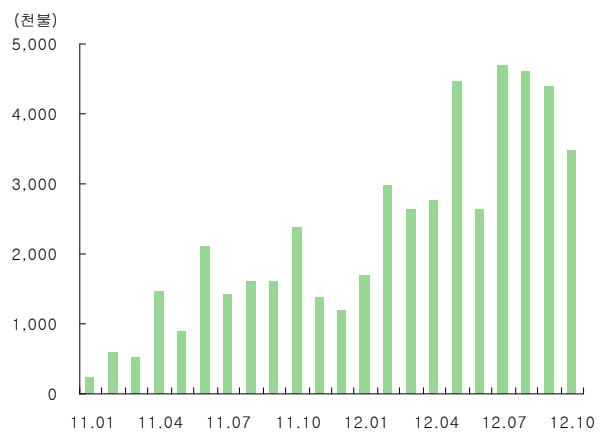
주: 10월 데이터는 잠정치
자료: 관세청, IBK투자증권

그림 11. 월별 크레인 수출현황 - 높은 성장세 지속



주: 10월 데이터는 잠정치
자료: 관세청, IBK투자증권

그림 12. 월별 크레인 러시아 수출금액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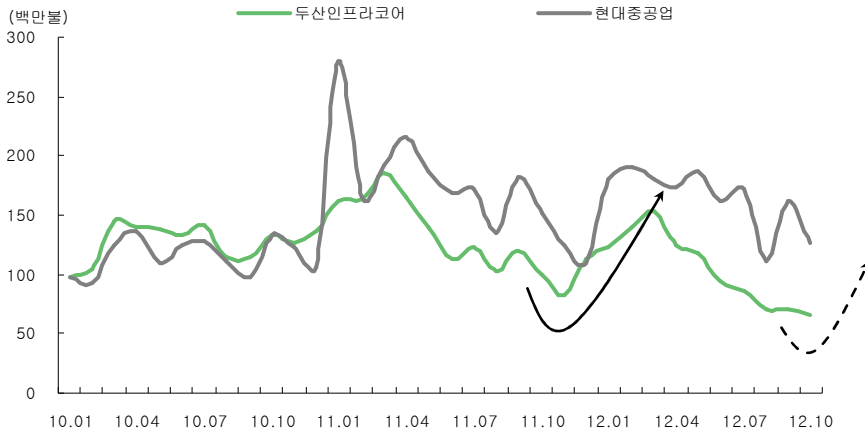
주: 10월 데이터는 잠정치
자료: 관세청, IBK투자증권

업체별로는 두산인프라코어, 현대중공업 모두 부진

지게차를 제외한 업체별 10월 수출금액은 두산인프라코어(이하 두산)가 전년동월대비 33.1% 감소하며 13개월 연속 역 성장을 지속한 것으로 추정된다. 현대중공업(이하 현대) 10월 수출 역시 전년동월대비 16.5%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. 두 기업 모두 중국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 수출금액이 감소세로 전환됨에 따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. 다만, 앞서 언급했듯이 최대 판매지역인 중국의 계절적 성수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4분기를 기점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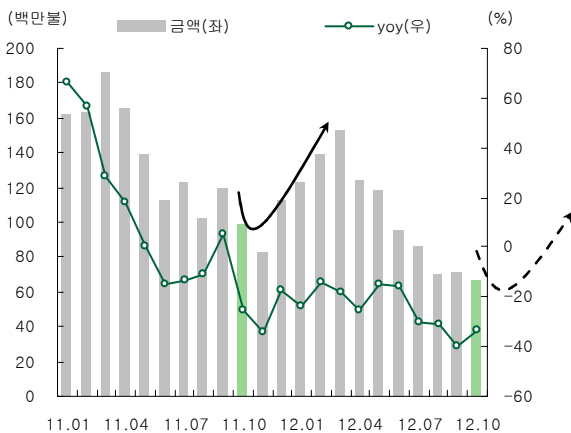
한편, 지게차를 포함한 현대중공업 10월 수출금액은 전년동월대비 12.0% 감소한 1.5억불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.

그림 13. 월별 두산/현대 건설기계 수출현황(지게차제외, 추정치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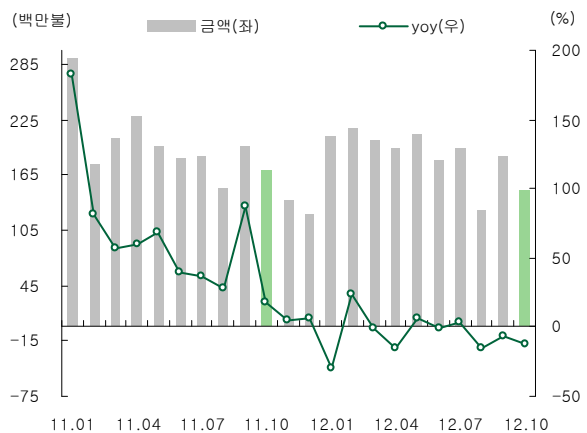
주: 10월 데이터는 잠정치
자료: 관세청, IBK투자증권

그림 14. 월별 두산 건설기계 수출현황 (지게차제외, 추정치)



주: 10월 데이터는 잠정치
자료: 관세청, IBK투자증권

그림 15. 월별 현대 건설기계 수출현황 (지게차포함, 추정치)



주: 10월 데이터는 잠정치
자료: 관세청, IBK투자증권